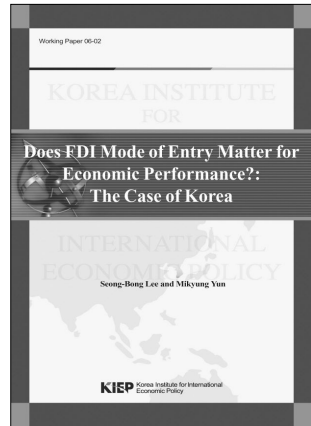


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?: The Case of Korea

저자: Seong-Bong Lee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
Mikyung Yun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



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Greenfield, 자산인수(P&A) 및 M&A로 구분하고 경제적 성과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. 외국인투자 유형 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“Buy or Build”이 있는데,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M&A와 Greenfield 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.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실질 면에서는 M&A형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형태로는 Greenfield 형태를 띤 투자 사안이다. 이들 투자형태는 소위 “자산인수(Purchase & Assumption: P&A)”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국내기업의 자산 또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면서

동 기업의 구주 또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국내기업의 자산 또는营业을 인수하는 것이다.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분야 10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인수방식을 포함하여 3가지 진입유형으로 투자유형을 구분하고, 이들 유형별로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. 분석결과 이들 세 가지 투자유형으로 구분한 이후에도 경제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달리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겠다. 